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2/06/20

빈곤에 대한 인식 조사 1990-2012

조사개요

1.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남녀 1,501명
2. 조사지역: 전국(제주도 제외)
3. 조사방법: 개별 면접조사
4. 조사기간: 2012년 3월 16~30일(2주간)
5. 표본추출: 2단층화집락추출법
6. 표본오차: $\pm 2.5\%$ 포인트(95% 신뢰수준)

빈곤과 경제양극화는 한 개인의 불행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심각한 문제다. 지난 4월 총선에 이어 연말 대선에서도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복지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국갤럽은 과거에 비해 극빈가구는 얼마나 증감했는가,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이 주제는 한국갤럽이 1990년에도 동일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어 비교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90년 6,147달러, 2011년 23,749달러다.

주요 결과

- '극빈가구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72.8%
- 10년 전에 비해 극빈가구의 생활수준 '더 못해졌다' 44.8%
- 빈곤의 원인은 '개인' 38.0% vs. '환경' 41.9%로 갈려
- 극빈자 지원 책임은 '정부'에 53.4%
- 극빈자 지원을 위해 '2배 이상의 세금 부담' 안에는 '반대'(77.1%) 의견이 압도적
-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KBS1 다큐멘터리 '현장르포 동행' 시청 경험 61.4%
- 노숙인 자활을 위한 잡지 '빅이슈' 인지 18.3%

'극빈가구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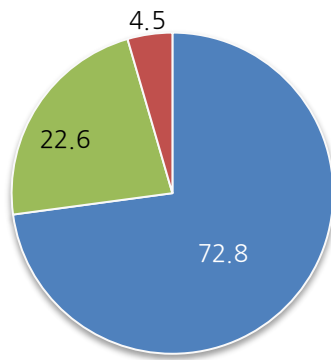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민들은 해마다 극빈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들의 생활수준은 과거에 비해 더 악화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1명에게 가난한 사람, 즉 극빈가구의 증감 여부에 대해 묻은 결과 72.8%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 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이 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했다. '비슷하다'는 22.6%, '더 줄어들고 있다'는 4.5%에 불과했다.

모든 지역, 연령대에서 극빈가구 증가 의견이 우세했지만 특히 은퇴를 앞둔 50대에서 극빈가구 증가에 대한 인식이 가장 컸다. 또한, 응답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 없이 우리 사회에서 극빈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 대체로 공감했다.

☞ 한국갤럽이 동일 질문으로 1990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극빈가구가 ‘더 늘어나고 있다’ 39.6%, ‘더 줄어들고 있다’는 응답은 42.8%였다. 70% 이상이 극빈가구가 증가한다고 인식한 2012년과는 큰 차이가 있다.

• 극빈가구 증감 여부 (단위: %)



구분		사례수	더 늘어나고 있다	비슷하다	더 줄어들고 있다
전체		1,501	72.8	22.6	4.5
연령별	19~29세	330	66.6	30.1	3.0
	30대	307	73.7	21.9	4.5
	40대	328	76.0	19.8	4.3
	50대	279	79.2	16.1	4.7
	60세 이상	257	69.0	24.3	6.7
소득 수준별	200만원 미만	286	71.9	22.3	5.8
	200~299만원	295	74.7	20.6	4.7
	300~399만원	453	72.7	22.4	4.9
	400만원 이상	453	72.1	24.5	3.4

질문) 귀하는 요즈음 우리나라에 아주 가난한 사람, 즉, 극빈가구가 해마다 더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해마다 더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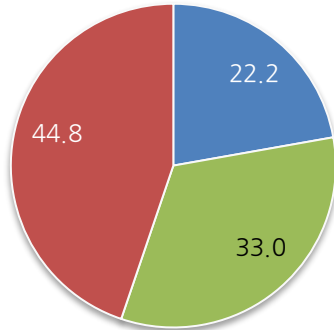
10년 전에 비해 극빈가구의 생활수준 더 못해졌다' 44.8%

그렇다면 늘어난 극빈가구의 생활수준은 과거에 비해 어떻게 변한 것으로 인식할까? 44.8%의 응답자가 극빈가구의 생활수준이 10년 전에 비해 ‘더 못해졌다’고 응답했다. ‘더 나아졌다’는 응답은 22.2%였다.

과거에 비해 국민총생산(GDP)은 증가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극빈가구가 늘고 있고 이들의 생활이 더 악화됐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는 국가경제의 성장과는 별개로 서민의 삶이 더 고단해지고 있으며,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결과다.

☞ 1990년에는 극빈가구의 생활수준에 대해 ‘더 나아졌다’가 76.0%, ‘더 못해졌다’가 12.9%였다. 1980년에서 1990년 사이는 우리나라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였다. 2000년 IT 버블 붕괴,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등 최근 10년 내 국내외 경제 불안 요소가 끊이지 않는 2012년 현재와는 큰 차이가 있다.

• 극빈가구 생활수준 변화 (단위: %)



구분		사례수	더 나아졌다	비슷하다	더 못해졌다
전체		1,501	22.2	33.0	44.8
연령별	19~29세	330	15.6	40.8	43.6
	30대	307	18.6	37.0	44.4
	40대	328	19.9	31.5	48.6
	50대	279	27.8	22.9	49.3
	60세 이상	257	32.0	31.2	36.8

질문) 그럼, 지난 10 년 전과 비교할 때 극빈가구의 생활수준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못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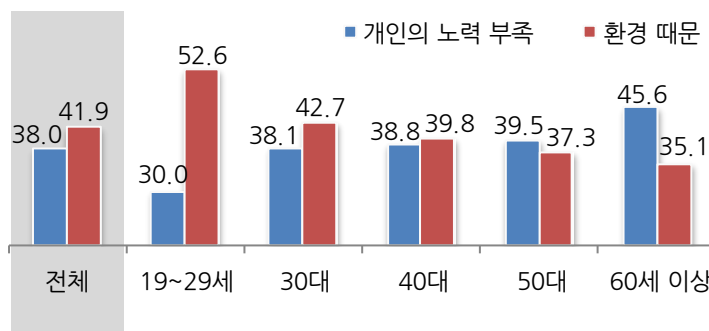
빈곤의 원인은 ‘개인’ 38.0% vs. ‘환경’ 41.9%로 갈려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들 개인의 노력 부족’이라는 응답이 38.0%, ‘노력해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41.9%로 의견이 갈렸다. 20.1%는 ‘개인 노력 부족과 환경이 비슷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었다.

빈곤의 원인에 대한 응답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환경 탓, 연령이 높을수록 개인 노력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나이가 어릴 때는 부모의 재력이나 가정환경이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의 노력과 책임이 차지하는 비중을 더 크게 본다고 해석할 수 있다.

☞ 1990년 동일 질문에서는 ‘개인의 노력 부족’이 37.9%, ‘환경 때문’이 51.8%, ‘비슷하다’가 10.3% 응답됐다. 당시에 비해 2012년에는 빈곤의 원인으로 환경 때문이라는 응답이 감소했다.

• 빈곤의 원인 (단위: %)



질문) 귀하의 주위를 보면,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노력 부족 때문에 가난한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노력해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가난한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극빈자 지원 책임은 '정부'에, 53.4%

빈곤의 원인은 개인과 환경으로 갈리지만, 극빈자를 돕기 위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가 53.4%로 가장 많았다. '극빈자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37.5%로 개인 책임에 대한 요구도 만만치 않았다. '부유층'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7.5%였다.

☞ 1990년에는 극빈자 지원 책임 주체로 '정부' 57.1%, '극빈자 자신' 36.5%, '부유층' 0.5%로 각각 응답됐다. 당시에 비해 2012년에는 부유층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 극빈자 지원 책임 (단위: %)

구분		사례수	정부	극빈자 자신	부유층
전체		1,501	53.4	37.5	7.5
연령별	19~29세	330	55.6	31.6	10.5
	30대	307	57.0	31.3	9.3
	40대	328	53.7	40.2	5.1
	50대	279	48.3	44.0	6.5
	60세 이상	257	51.2	41.8	5.7

질문) 귀하는 극빈자들을 돕기 위한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극빈자 지원을 위해 '2배 이상의 세금 부담' 안에는 '반대'(77.1%)가 압도적

극빈자 지원을 위해 '지금보다 2배 이상 세금을 더 내는' 안에 대해서는 77.1%가 반대했고 찬성은 12.6%로 낮았다. 이 질문에서 설정한 2배 이상이라는 세금 설정이 개인의 희생으로는 무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극빈자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주체와 더불어 적정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 극빈자 복지혜택을 위한 세금 2배 부담 안에 대한 의견 (단위: %)

구분		사례수	찬성	반대	찬성도 반대도 아님
전체		1,501	12.6	77.1	10.3
연령별	19~29세	330	11.1	70.7	18.2
	30대	307	16.0	74.0	10.0
	40대	328	12.5	80.5	7.0
	50대	279	13.3	79.2	7.5
	60세 이상	257	10.0	82.3	7.7

질문) 만약 정부가 극빈자들에게 복지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해

귀하께서 지금보다 2 배 이상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귀하는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한편, 응답자의 61.4%는 KBS1의 극빈자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 '현장르포 동행' 프로그램 시청 경험이 있으며, 오는 7월 1일 한국 창간 1주년을 맞이하는 노숙인 자활을 위한 잡지 '빅이슈'를 듣거나 본 적이 있는 인지자는 18.3%로 나타났다.